

위용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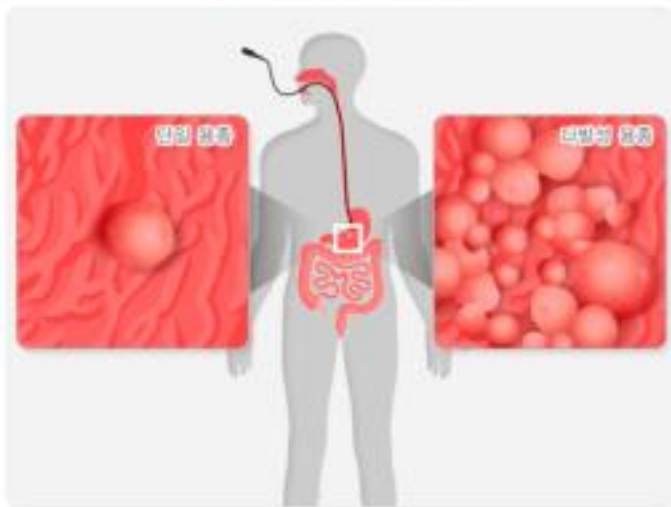
• 등록일자 : 2020-03-28 • 업데이트 : 2023-09-12 • 조회 : 39312 • 정보신청 : 100

개요

위용종이란 위 속에서 주변 점막으로부터 혹이 자라서 위의 내강을 향하여 돌출한 병변을 총칭합니다.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 용종의 잘록한 혹이 존재하는 유경성과 혹이 존재하지 않는 무경성 용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용종은 위의 점막상피세포로부터 기원한 돌출성 병변에 국한하여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발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산발적으로 여러 개가 관찰되기도 하고 가족성 용종 증후군, 포이츠 예거 증후군과 같이 다발성으로 관찰되는 용종증 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부 위용종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위용종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위용종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예방방법도 없으며 다만 내시경 추적검사로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용종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대부분은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나 위용종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빈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위인 유문부에 크기가 큰 용종이 존재한다면 위-십이지장 부위의 궤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용종은 양성이지만 일부에서 악성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검사에서 2~3%의 빈도로 위에 용종이 관찰되며, 이 중 증식성 용종이 약 75%, 샘종이 6~1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용종에서 정확한 발생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생률이 드문 편이며 위용종에 대한 치료는 보통 용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용종의 모양에 따른 분류》



개요-종류

1. 위저선 용종

위저선 용종은 점막의 샘 구조가 국소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하며 병리학적으로는 정상적인 위 체부 상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고, 용종의 하단부가 잘록한 모양이 없는 무경성 결절로 크기가 보통 0.1~0.8 cm입니다. 궤색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증상이 없으며 악성화하거나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이 경우 여성에서 더 많이 생기고 이형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1% 정도로 보고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으며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저선 용종을 가진 환자들은 대장의 샘종 또는 암종의 위험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저선 용종 자체는 비종양성이고 악성의 우려가 없으므로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증식성 용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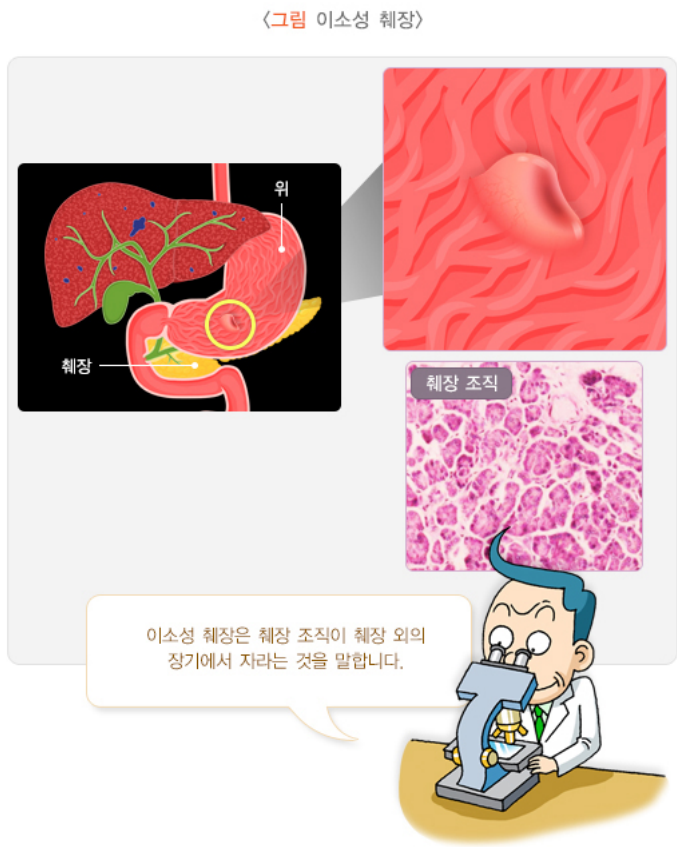
증식성 혹은 과형성 용종으로 불리며 위 점막 상피층의 과다 증식으로 발생합니다. 위의 모든 부위에서 생길 수 있으나 주로 전정부에서 관찰되며, 분문 및 기저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용종 중 60%의 비율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나타납니다. 단발성 혹은 다발성으로 생기며 대부분 크기는 1 cm 이하입니다. 내시경 소견 특징으로 표면은 요철이 현저하거나 주위 점막보다 붉고 건드리면 쉽게 출혈이 됩니다. 증식성 용종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점막의 자극과 만성 염증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에서 흔히 발생하고, 헬리코박터 균의 박멸 후에 증식성 용종이 40~71% 소멸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일련의 변화가 용종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크기가 크거나 다발성일 경우에 출혈이 되어 빈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악성 변화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이형성증 또는 암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크기가 2 cm 이상이거나 다발성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크기가 2 cm 이상이거나 무경성(용종의 하단부가 잘록한 모양이 없는), 과립상의 거친 표면, 함몰, 궤양, 분열상을 보이는 경우 국소적인 악성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시경적 절제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3. 샘종(선종)

위 샘종은 위샘 암의 중요한 전암성 병변으로 이형성이 있는 원주상피가 증식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형성은 비침습성 종양성 상피세포 병변으로 정의되며, 정상 상피세포에 비하여 특징이 다른 정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 이형성으로 분류됩니다. 위 샘종은 전체 위용종 중 6~10%를 차지하고 위 전정부에서 발견되며 단발성으로 잘 생깁니다. 전암성 병변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등급 샘종을 거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조직학적 이형성의 정도 및 구조의 이상 정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급 샘종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저등급 이형성은 내시경적 추적관찰 혹은 내시경적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이소성 회장

이소성 회장은 회장조직이 회장 외의 장기에서 자라는 것으로 유병률은 약 2% 정도로 보고됩니다. 흔히 발견되는 장소는 위 전정부나 십이지장이나 유두부 주변에 위치합니다. 대개 우연히 발견되고 무증상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종양과의 감별진단이 문제가 되며 드물지만 회장암, 회장암 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시경 소견으로 대부분 위 전정부의 대만부에 2 cm 미만의 크기로 보이며 정상 점막으로 덮여있고 표면에 중심 함몰이 관찰됩니다.



진단 및 검사

위양종은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발견이 되지만 상부 위장관 조영술 검사를 통해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내시경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장의 용종은 대부분이 종양성인데 반해, 위의 용종은 대부분 비종양성 용종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병리학적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크개는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으로 나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위양종이 발견되면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 소견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비교적 위내시경을 통하여 흔하게 진단되는 위양종의 병리학적인 유형으로는 위저선 용종, 증식성 용종, 샘종, 이소성 췌장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양종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며 대부분 위선이 증식하여 발생한 증식성 용종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단독으로 위양종을 감별할 수도 있지만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색소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및 확대내시경 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양종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조직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약물 치료

모든 위양종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위양종의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양종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면서 용종을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위양종은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식성 용종은 악성 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드물게 악성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크기가 2 cm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증식성 용종도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양종이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제거해야 하나요?

A.

모든 위양종을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위양종의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용종은 조직검사를 하는 동시에 제거되기도 합니다. 보다 더 큰 용종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제거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샘종이거나 크기가 2 cm 이상의 증식성 용종은 제거하게 됩니다.

Q. 위양종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일부 위양종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이 원인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법이나 예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위양종과 헬리코박터 균 또는 위염의 연관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평소 일반적인 위 건강을 지키는 식이습관과 절주를 하면서 위내시경 추적검사로 변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위양종이 모두 위암으로 진행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양종은 양성 병변으로 암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악성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 시 위내시경을 통한 생검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찰할 지, 관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할 지, 아니면 제거를 할 지, 또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안내](#) [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문의사항: 02-2030-6602 (평일 9:00-17:00, 12:00-13:00 제외) / 관리자 이메일 : nhis@korea.kr
COPYRIGHT © 2024 질병관리청. ALL RIGHT RESERVED

해외기관

유관기관

정부기관

※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